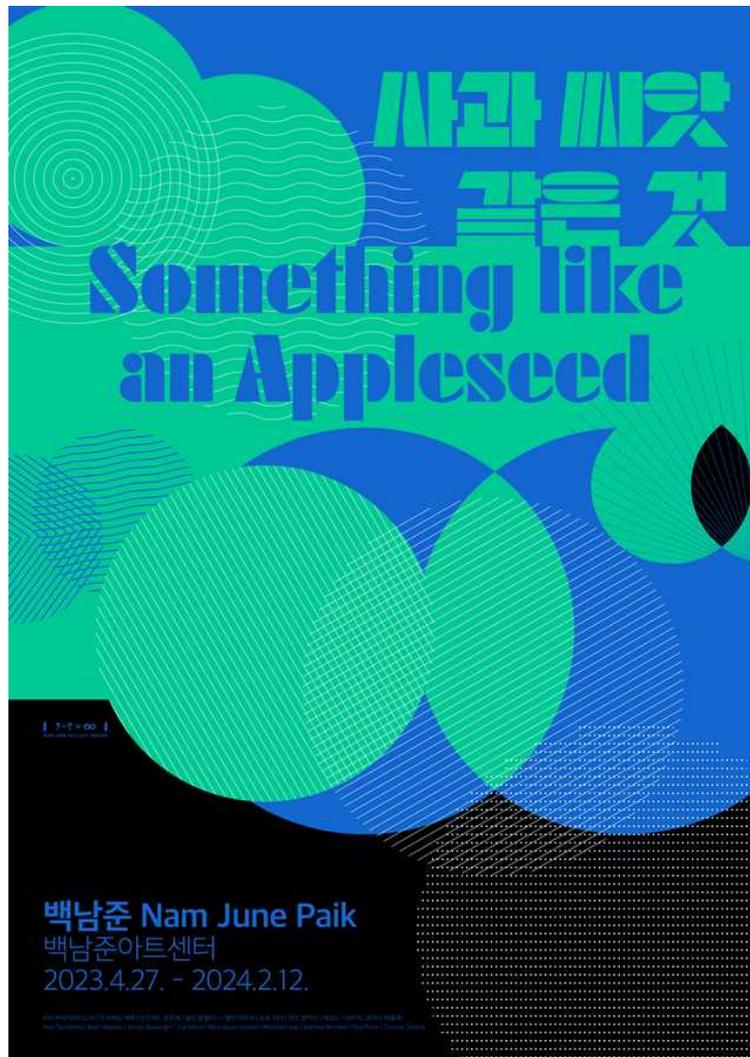


보도자료

제목	2023 백남준 전시 《사과 씨앗 같은 것》		
문의	취재: 장효진 학예사	t.031-201-8545	m.010-2953-1023
	전시: 조권진 학예사	t.031-201-8543	m.010-3437-3020
자료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 다운로드		
배포	2023. 4. 26	쪽수	총 15매

《사과 씨앗 같은 것》 *Something like an Applesseed*



[전시 포스터]

- ▶ 백남준의 대표작과 연보로 그의 삶과 예술적 여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백남준을 한층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시
- ▶ 백남준아트센터 신소장품 <랜덤 액세스 오디오테이프>와 <연장선 있는 오디오테이프 헤드>를 국내 최초 공개하고 백남준의 랜덤 액세스 사유를 재조명
- ▶ 백남준아트센터 인터뷰 프로젝트에 참여한 16인의 인물들이 전하는 흥미롭고, 다양한, 전에 없던 백남준의 이야기를 소개
- ▶ 작품의 내부 구조를 개방한 설치로 백남준이 다루고 있는 기술의 독창적인 기능과 원리에 담긴 창의적 아이디어, 참여, 피드백 등 소통의 단계를 직관적으로 경험하는 전시 구성

■ 전시개요

- 전시명: 《사과 씨앗 같은 것》 *Something like an Appleseed*
- 전시기간: 2023. 4. 27. ~ 2024. 2. 12.
- 전시장소: 백남준아트센터 1층 제1전시실
- 참여작가: 백남준, 마리 바우어마이스터, 만프레드 레베, 만프레드 몬트베, 알도 탐벨리니, 앨런 캐프로, 오토 피네, 저드 알커트, 제임스 시라이트, 토마스 태들록
- 전시작품: 총 작품 29점, 백남준아트센터 인터뷰 프로젝트 비디오 14점
- 전시기획: 조권진(백남준아트센터 학예사)
- 공간 및 그래픽 디자인: 장효진(백남준아트센터 학예사)
- 교육기획: 박선영(백남준아트센터 교육연구원)
- 주최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문화재단

■ 전시 개막 프로그램

1. 인터뷰의 기술: 백남준아트센터 인터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상영_마리 바우어마이스터 인터뷰, 황병기 인터뷰 외
정담회_권혜원 작가, 박상애 아키비스트, 현시원 시청각 대표
4월 27일 (목) 14:00 백남준아트센터 1층 랜덤 액세스 홀
 2.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보다, 천천히
차담회_고영래 모더레이터, 조권진 큐레이터
4월 27일 (목) 16:00 백남준아트센터 1층 랜덤 액세스 홀
- * 사과 씨앗 백키지(Paikage) 나눔
미션에 참여하여 마음속 새로운 예술의 싹을 틔워 볼 수 있는 특별 개막 이벤트
4월 27일 (목) 10:00-17:00 (당일 선착순)

■ 전시소개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관장 김성은)는 2023년 4월 27일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 백남준 전시 《사과 씨앗 같은 것》을 개최한다. 전시의 제목은 1980년 뉴욕 현대미술관이 기획한 백남준의 강연, 「임의 접속 정보(Random Access Information)」에서 **백남준이 예술과 소통의 교집합을 '사과 씨앗 같은 것'이라 언급한 것에서 가져왔다.** 이 씨앗은 예술과 소통이 교차하여 생겨날 수 있는 전에 없던 가능성에 대한 비유이며, 당시 새로운 매체이자 시간의 기록이었던 비디오가 가진 잠재력을 이야기한다. 이 전시는 시공간의 한계 없이 언제든지 접속이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의 우리가 어떻게 이 씨앗을 싹 틔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를 제안한다.

《사과 씨앗 같은 것》은 **백남준의 삶과 예술적 여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보와 함께** 선보인다. 백남준 연보는 실험적인 작곡과 공연에 몰두하던 독일에서의 시기, 미국에서 본격화된 텔레비전과 비디오 아트 작업, 대형 전시와 글로벌 프로젝트로 전 세계를 누비며 펼쳤던 그의 예술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정리하였다. 또한 백남준에게 영감을 주고 협력했던 다양한 인물들과의 활동과 작품의 주요 제작 시기마다 저술했던 백남준의 글을 시기별로 보여주어 **백남준의 예술 세계를 한층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전시에서 **국내 최초로 <랜덤 액세스 오디오테이프>와 <연장선 있는 오디오테이프 헤드>를 만날 수 있다.** 이 작품은 2022년 백남준아트센터가 수집한 신소장품으로 1963년 **백남준의 첫 개인전 《음악의 전시 - 전자 텔레비전》에서 전시했던 <랜덤 액세스>를 재제작한 작품이다.** 시간의 구조를 조작하고 비디오의 임의적 접근 가능성을 내다보았던 백남준의 사유를 담고 있어 백남준의 초기 작품을 이해하는 단초를 마련하는 작품이다. 전시를 특별하게 관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는 백남준 작업 방식의 이해를 돕는 작품 설치 방식이다. 전시는 작품의 내부 구조를 개방한 설치로 구성되어 관객은 백남준이 다루고 있는 기술의 독창적인 기능과 원리에 담긴 창의적 아이디어, 자발적 참여, 피드백 등 소통의 단계를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그 외 주요 전시작품으로 1962년부터 백남준과 동료 예술가 마리 바우어마이스터가 주고받은 100여 개의 편지와 마리의 쉘른 아틀리에 공연에서 사용되었던 피아노의 잔해로 구성된 작품, **<피아노와 편지>**가 있다. 당시 서로의 소식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편지에는 허심탄회한 우정의 대화들과 백남준의 손 드로잉이 함께 담겨 있다. 오랜만에 선보이는 **<달은 가장 오래된 TV>**는 그의 첫 개인전에서 전시된 실험 텔레비전에서 시작하여 13대의 텔레비전으로 확장된 작품으로 텔레비전이 없던 시절 달을 통해 서로를 연결시켜 주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작품이다. 그리고 1986년 동서양이 절대 만날 수 없다고 했던 키플링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며, 태평양을 넘어 대륙을 연결한 위성 프로젝트 **<바이바이 키플링>**과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 수상작이며 동서양을 넘나들었던 역사적 인물로 서로 다른 문화의 소통을

상징하는 <마르코 폴로>를 전시에서 만날 수 있다. 또한 백남준아트센터가 2008년 개관 초기부터 진행해온 인터뷰 프로젝트를 새롭게 소개한다. 이 인터뷰는 백남준과 함께 일했던 동료 예술가, 테크니션, 방송 프로듀서, 영화 감독, 큐레이터 등 16명의 선별된 인물들로 구성되었으며 전시의 관객은 이들이 전하는 백남준과의 만남과 관계, 작품으로만 접했던 내용들의 다양한 이면들을 담은 또 다른 백남준의 삶과 예술을 만날 수 있다.

■ 주요 작품 이미지



백남준, 마리 바우어마이스터, 〈피아노와 편지〉
1960(피아노)/1962-1980(편지), 가변크기, 분해된 피아노, 백남준이 보낸 사진, 문서, 편지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Nam June Paik Estate

백남준의 동료 예술가이자 쾰른의 아틀리에에서 전위 음악 콘서트를 기획했던 마리 바우어마이스터는 1958년부터 백남준과 우정을 나누었다. 바우어마이스터의 아틀리에에는 존 케이지, 실바노 부소티, 벤저민 패터슨, 백남준, 한스 G. 헬름스 등 전위 음악을 하는 음악계, 미술계, 문학계 인사들이 결집했던 장소이기도 했다. 바우어마이스터 아틀리에에는 1962년 그녀가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2년 동안 운영이 되었다. 〈피아노와 편지〉에 전시된 피아노 역시 당시 콘서트에 사용되었던 피아노의 잔해이며, 편지들과 사진들은 바우어마이스터와 백남준이 주고받았던 서신과 당시 스튜디오에서 있었던 콘서트들의 장면을 담고 있다. 부서진 피아노는 새로운 소리와 관람객의 음악 수용 방식을 고민했던 백남준과 동료 예술가들의 흔적을 담고 있다.



백남준, 〈랜덤 액세스 오디오테이프〉

1963(1975), 71x130cm(나무판), 14x25x8cm(카세트 플레이어), 나무판, 플라스틱 호일, 오디오 테이프,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 마그네틱 헤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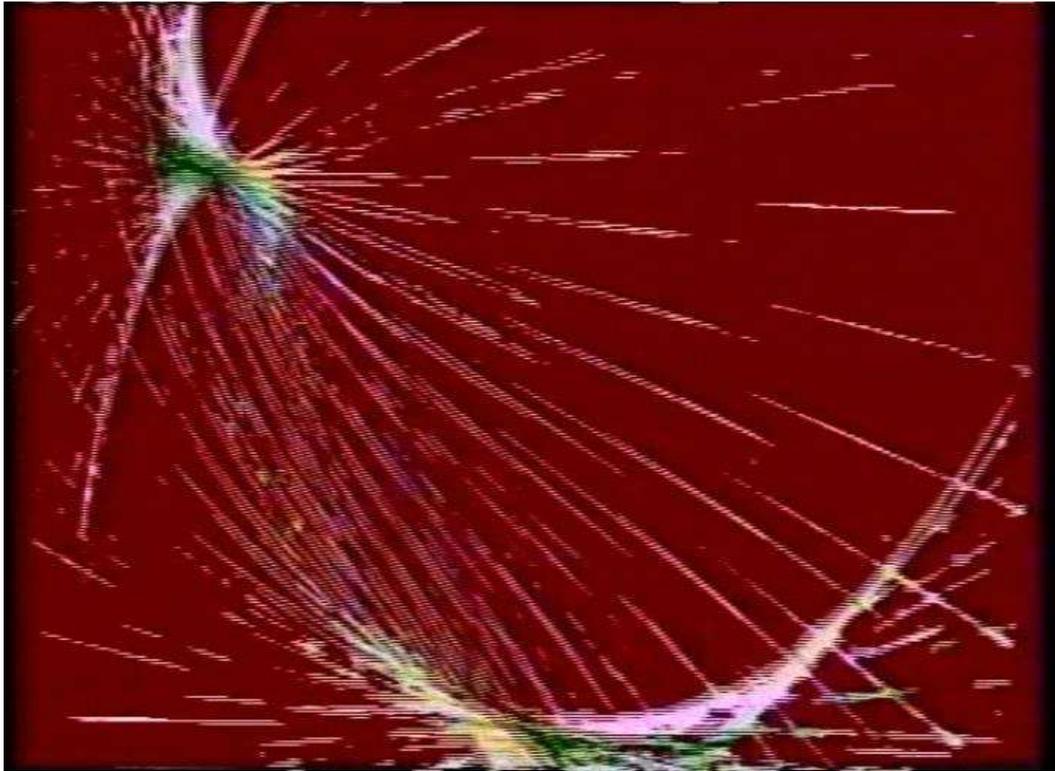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Nam June Paik Estate

백남준은 1963년 부퍼탈 갤러리 파르나스에서 열린 그의 첫 개인전에서 〈랜덤 액세스〉를 선보였다. 마그네틱테이프를 풀어내 여러 길이의 조각들로 잘라 벽면에 붙여 놓고 관람객이 재생 장치에서 분리된 금속 헤드로 원하는 테이프 부분을 훑어 녹음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한 작품이다. 이후 1975년 뒤셀도르프 시립미술관의 전시 《보고 듣기》를 위해 백남준은 이 작품을 재제작하였다. 벽 대신 마그네틱테이프를 붙인 나무판과 재생 헤드를 연결한 휴대용 카세트플레이어로 구성되었고, 첫 번째 작품과 마찬가지로 관람객이 직접 테이프를 긁어서 소리를 재생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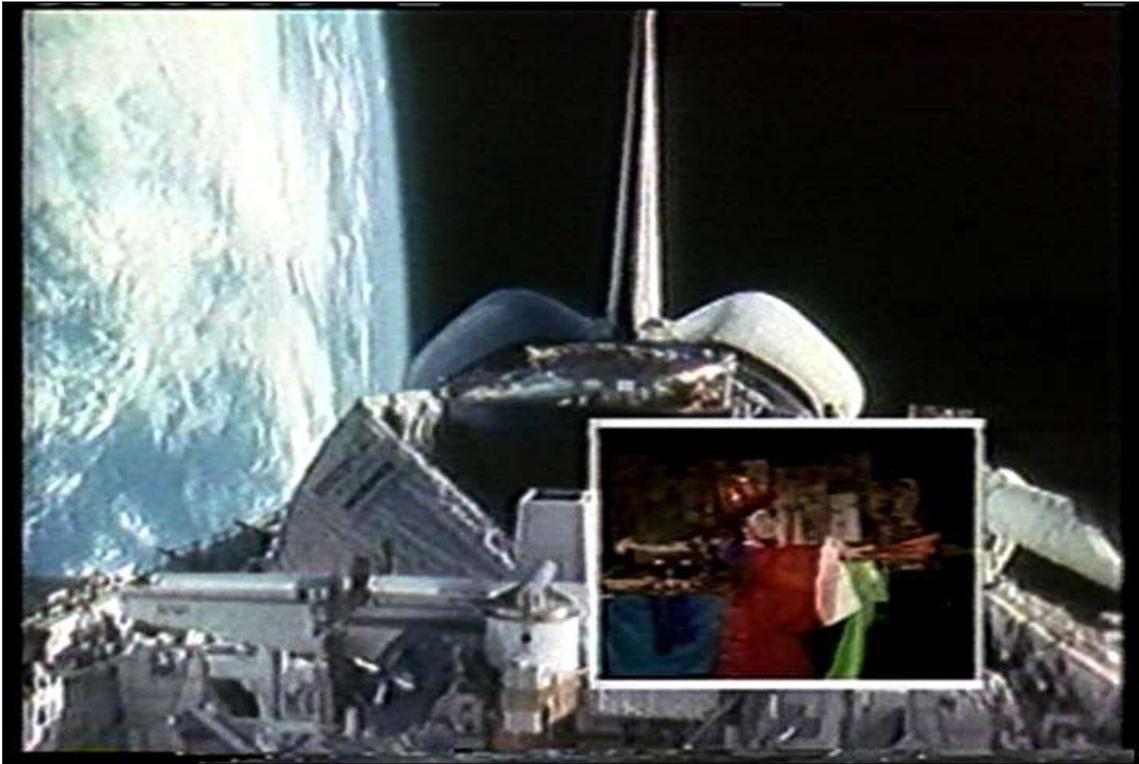
백남준, <달은 가장 오래된 TV>
1965(2000), 가변크기, CRT TV 모니터 13대, 12-채널 비디오, 컬러, 무성, LD; <E-Moon>, 1-채널 비디오, 컬러, 유성, DVD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Nam June Paik Estate

비디오를 통해 시간을 공간적으로 재조합하기를 즐겼던 백남준은 이 작품에서 인류에게 가장 오래된 빛의 원천 중 하나인 달을 텔레비전 화면으로 보여준다. 초승달부터 보름달까지 달의 주기가 12대의 텔레비전으로 형상화되는데, 1965년 뉴욕 갤러리아 보니노에서 처음 선보일 당시에는 초기 진공관 텔레비전을 사용하였다. 백남준은 진공관 끝에 자석을 고정해 내부 회로의 전자기적 신호를 방해하고 그 신호만으로 텔레비전 화면에 마치 달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나도록 한 것이다. 관람자는 시간의 길이와 깊이, 순간성과 영원성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작품의 제목은 텔레비전이 없던 시절 지구의 유일한 위성인 달을 바라보며 이미지를 투영하고 이야기를 상상하던 모습을 텔레비전 시청에 빗댄 것이라 할 수 있다.



백남준, 알도 탐벨리니, 토마스 태들록, 앨런 캐프로, 제임스 시라이트, 오토 피네
〈매체는 매체다〉
1969, 29:25, 흑백/컬러, 유성
백남준아트센터 비디오 아카이브 소장

1969년 3월 23일 보스턴의 WGBH 방송국에서 방영한 〈매체는 매체다〉는 미국 최초의 비디오 아트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6인의 작가가 참여하였다. “예술가들이 방송을 장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 텔레비전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서 수백만을 위한 미술관을 바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프로그램은 알도 탐벨리니의 〈블랙〉, 토마스 태들록의 〈아키투론〉, 앨런 캐프로의 〈헬로우〉, 제임스 시라이트의 〈카프리치오〉, 오토 피네의 〈일렉트로닉 라이트 발레〉, 마지막으로 백남준의 〈전자 오페라 1번〉이 순차적으로 방송되었다. 백남준 작품은 자신의 실험 텔레비전으로부터 직접 녹화한 다양한 댄싱 패턴, 닉슨 대통령과 변호사 존 미첼의 영상 푸티지, 그리고 카메라 세 대로 현장에서 촬영한 3명의 남성 히피와 여성 댄서의 모습을 교차 편집하여 우연적으로 생성한 이미지를 송출하였다. 이미지들이 중첩되어 환영처럼 보이는 영상처리 기법과, 이것은 참여 TV입니다” “눈을 감으세요” “2/3 눈을 뜨세요” 등 시청자 참여를 유도하는 내레이션을 특징으로 한다.



백남준, 〈바이바이 키플링〉
1986, 30:55, 컬러, 유성
백남준아트센터 비디오 아카이브 소장

백남준의 두 번째 위성 프로젝트, 〈바이바이 키플링〉은 “동양은 동양이고 서양은 서양이니, 그 둘은 절대 만나지 못하리라”라고 말한 영국의 소설가 러디어드 키플링을 반박하며 음악, 예술, 스포츠로 동양과 서양이 서로 만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986년 10월 5일 오전 10시부터 뉴욕, 도쿄, 서울을 동시에 연결한 생방송이 미국 WNET을 통해 송출되었고 이후 일본과 한국은 녹화방송 되었다. 이 작품은 비틀스의 〈컴 투게더〉 음악과 한국의 장구 공연, 키스 해링의 스케치 퍼포먼스, 동서양이 서로 연결되는 텔레비전 그래픽 등으로 구성된 도입부로 시작한다. 뉴욕과 도쿄가 이원 생중계를 위한 스튜디오가 되어, 각 장소에서 루 리드와 필립 글래스 앙상블이 공연하고 류이치 사카모토, 아라타 이소자키, 이세이 미야케의 음악, 건축, 패션이 소개되었다. 영상 전체는 농악, 차전놀이, 스모, 남대문 시장 상인 등 동양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보여주는 장면과 뉴욕과 도쿄 스튜디오의 공연 장면이 교차하여 삽입되는 가운데 중간중간 서울 아시안 게임의 마라톤 경주를 중계하였다. 마라톤의 결승전이 가까워질수록 필립 글래스 앙상블의 연주로 경주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르며, 마지막은 도쿄에서 류이치 사카모토와 백남준의 〈비디오 볼〉 퍼포먼스로 마무리된다.



백남준, 〈마르코 폴로〉

1993, 330×160×370cm, 자동차 본체, 냉장고, TV 모니터 6대, 네온, 생화 외 기타, 컬러, 무성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소장

〈마르코 폴로〉는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출품되었던 작품으로 동양과 서양을 넘나들었던 역사적 인물을 로봇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백남준은 자신의 전시를 《전자 초고속도로: 베니스에서 울란바토르까지》로 정하고 동서양이 교류했던 역사적 고속도로와 전자 고속도로를 중첩 시킨다. 20세기의 〈마르코 폴로〉는 엔진 대신 꽃으로 장식된 폭스바겐 뉴비틀을 타고 이동한다. 마르코 폴로의 얼굴과 발은 붉은색 네온으로 만든 상형문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6대의 텔레비전으로 구성된 몸체에서는 동서양의 건축물 이미지와 원자가 분열하는 듯한 추상적인 전자 이미지들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마르코 폴로〉는 세계를 광대역 통신으로 연결하는 '전자 고속도로'를 달리며 미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거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백남준, <실제 물고기 / 생방송 물고기>

1982(1999), 가변크기, 흑백 필코 TV 모니터 1대, 필코 TV 케이스 1개, 어항 1개, 폐쇄회로 카메라 1대, 살아 있는 물고기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Nam June Paik Estate

나란히 놓인 두 대의 텔레비전 중 왼쪽의 TV 케이스 안에는 어항이 들어가 있고 그 속의 물고기를 폐쇄회로 카메라로 촬영해 오른쪽 모니터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사용된 TV 수상기는 1950년대 후반 필코사가 제작한 프레딕타 진공관 텔레비전 제품으로, 고굴절각 화면과 나무 콘솔 위에서 회전 고리로 돌릴 수 있는 독특한 구조 등으로 당시 미래의 텔레비전 디자인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어항을 닮은 수상기의 형태는 작품의 구도를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이다. 제목을 'real'과 'live'라는 대구로 구성한 것은 일종의 백남준식 언어유희라고 할 수 있다. 영어의 'live'는 '생방송의'라는 뜻 외에 '살아 있는'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제목은 '실제 물고기 / 살아있는 물고기'라는 동어반복이 되어, 생방송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과연 '살아있는' 것인지 되묻는 구조이다.



백남준, 〈퐁텐블로〉

1988, 195×235×4cm, 퀘이사 CRT TV 모니터 20대, 금속 그리드, 금색 나무액자, RF 분배기, 2-채널 비디오, 컬러, 무성, DVD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Nam June Paik Estate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금색 도장을 한 나무 액자 안에 20대의 컬러 모니터가 배치되어 있고, 2채널의 영상은 각각 고전 영화들의 이미지를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보여준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작품들은 그 윤곽만이 드러나거나, 때로는 중첩되고 왜곡되며 변화한다. “퐁텐블로”라는 제목은 프랑스의 퐁텐블로 성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성은 나폴레옹을 비롯한 프랑스의 군주들이 머물렀던 화려한 거처로, 그림을 나란히 걸어놓는 공간인 갤러리의 원형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프랑수아 1세의 갤러리에는 〈퐁텐블로〉에 쓰인 것과 같은 화려한 금색 액자에 회화 작품이 걸려있다. “콜라주 기법이 유화를 대신했듯이, 음극선관이 캔버스를 대신할 것이다.”라는 백남준의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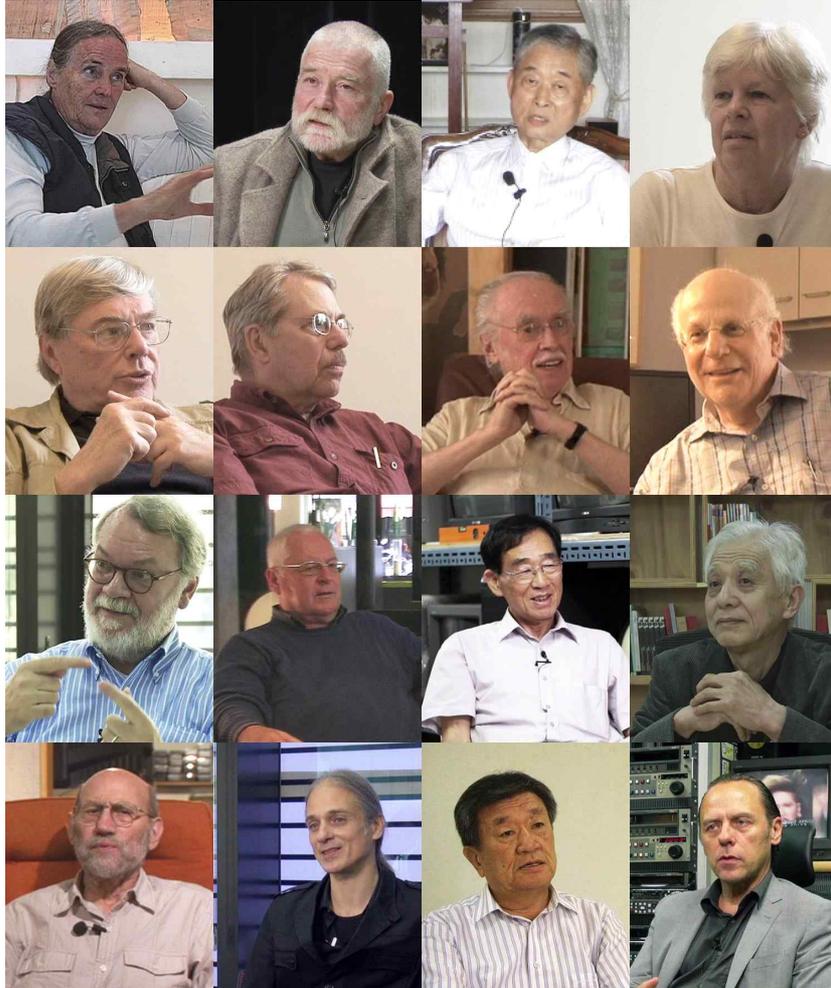


백남준, 〈버마 체스트〉

1995, 240×183×140cm, 나무 서랍장 1개, LCD TV 모니터 8대, 빔 프로젝터 5대, 스펀지 로봇, 철제 로봇, 청동 와불, 종이, 사진, 장식품, 2-채널 비디오, 컬러, 무성, LD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Nam June Paik Estate

미얀마 스타일의 황금빛 궤의 상단부 문을 열면 여덟 대의 소형 모니터에서 영상이 나오고 양쪽 측면에서는 두 대의 프로젝터를 통해 여성의 누드와 샬럿 무어먼의 퍼포먼스 영상이 보여진다. 하단부 2단 서랍장에는 각종 장식품과 드로잉, 사진 등이 담겨있다. 궤의 서랍은 내밀한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동시에 그의 이야기를 타인에게 풀어놓는 이야기 보따리를 연상케 한다. 서랍장 곳곳에 스펀지 로봇과 철제 로봇, 동남아 양식의 청동 와불 등이 놓여 있다.

■ 백남준아트센터 인터뷰 프로젝트



마리 바우어마이스터, 페터 브리츠만, 황병기, 올리비아 태판, 프레드 바직,
데이비드 애트우드, 러셀 코너, 하워드 와인버그, 볼프 헤르조겐라트, 클라우스 부스만,
이정성, 아베 슈야, 저드 알커트, 폴 게린, 이태행, 잉고 권터

2008년부터 시작한 백남준아트센터의 인터뷰 프로젝트는 백남준과 인연이 있었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동료 작가, 테크니션, 큐레이터, 영화 감독, 방송 프로듀서 등으로 구성된 인터뷰 인물들은 인간 백남준에 대한 기술, 퍼포먼스가 있었던 당시의 생생한 현장, 글과 작품으로만 접했던 내용의 이면 등 다양한 주제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전해주었다. 백남준아트센터가 진행한 50여 명이 넘는 인물들의 인터뷰는 그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는 다양한 백남준을 수집하는 일이며, 백남준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존재한다. 이 인터뷰들 가운데 16인의 발췌 영상을 이번 전시에 선보인다.

■ 관람안내

- 관람요금: 무료
-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 입장은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입니다.
- 휴 관 일: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